

한나라 '공천시기 갈등' 일촉즉발

李당선인, 새정부 출범전에 불가 입장 밝혀 "밀실공천 의도 드러냈다" 親朴 인사들 반발

총선 공천 시기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그간 공천 시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일 공중파방송과의 신년대담을 통해 자신의 취임일(2월25일) 이후 공천자 확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정부조직법도 바뀌어야 하고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공천하는 문제와 겹쳐버리면 국가가 안 된다"면서 "공천이 안 되겠다는 국회의원이 거기(국회)에 나와서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총선 출마자를 일부라도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 당선인이 스스로 공천 시기를 어느 정도 못 박은 셈이다.

이 당선인 측근들의 '2월말 공천착수' 계획에 대해 "측근들의 주장일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해 온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다소 당황한 듯한 반응 속에 "밀실공천 의도를 결국 드러냈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내심 2월초 공천 착수를 요구해온 박 전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당선인의 의중이 확인된 만큼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때가 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한다.

반면 이 당선인의 공개적 언급을 계기로 당선인 측 인사들은 2월말 공천 착수 계획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결국 공천을 둘러싼 친이(親李)-친박(親朴) 인사들간 충돌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이재오 최고위원은 "총선 공천 시기에 대한 생각은 당선인의 뜻과 같다"면서 "이번 공천의 핵심 전략은 계파의 유불리가 우선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이(취임후 공천을) 얘기한 배경은 총선에서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달라는 한나라당의 논리가 먹히게 하기 위해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를 높인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청사진도 없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없는 상태에서 조기 공천을 한다면 시비만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랍 30일 케냐 대선에서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아당의 라이벌 오딩가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이후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종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일 키베라 지역 주민들이 종족간 분쟁으로 불타버린 주거용 천막을 다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피로 물든 케냐 대선...270여명 사망

부정 시비, 종족 분쟁 격화 유혈사태 확산

케냐의 대통령 선거 부정시비에서 비롯된 소요가 종족분쟁을 격화시키면서 유혈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구랍 30일 케냐 대선에서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아당의 라이벌 오딩가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이후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종족 분쟁이 격화되면서 폭력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 희생자가 속

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대선을 통해 키바키 대통령의 키쿠유 부족과 오딩가 후보의 루오 부족 등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4일째 이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로 200여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폭력사태로 이날까지 최소 270명이 사망했다면서 이날 폭

동을 피해 집을 나온 대부분 키쿠유족이 피신해 있던 옐도레트의 한 교회에 폭도들이 불을 질러 어린이 등 최대 5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963년 케냐의 독립 이후 정치와 경제계를 지배해온 키쿠유족을 향한 분노를 이번 선거가 폭발시켰다"면서 "폭력사태가 수도 나이로비의 슬럼가에서부터 인도양 해안 지대의 도시들까지 휩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공천 지연,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거론한 '대통령 취임식'(2월25일) 이후 총선공천 시차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뒤로 미룬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신년하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한다"면

서 "석연찮은 이유로 당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을 그렇게 뒤로 미룬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당선인 측과 공천 시기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당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이 "이 당선인과(지난 주말) 만나서 이야기를 하

다가(공천 시기) 그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당선인이 분명히 늦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기가 달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29일 회동에서 "공천을 늦추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었음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총리인준이라든가 인사청문회, 이런 것에 차질이 빚어질까봐(공천을) 그런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인준 못받을 사람을 내놓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昌 "인재 영입 쉽지 않네" 문국현 "총선 30석 목표"

창당 발기인 '민초' 중심 전환 등 검토

"당 대표 자리도 내 드릴 준비 돼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추진 중인 보수 신당의 외부인사 영입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신당의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영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신당이라는 한계에도, '이명박 정부'로 인적자원이 풀리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이 전 총재는 새해 첫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인재 영입과 관련, "포장할 필요는 없고,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신당 출현을 꺼리고 신당이 안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전 총재측 일각에서는 신당 출현을 가장 꺼리는 한나라당이 방해 공작을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소속 조순형 의원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물론 대통령민주신당 및 한나라당내 '흔들리는 금배지'들과의 접촉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당기획단은 이달 10일 이내 구성될 창당발기인의 규모를 애초 저명인을 중심으로 한 30명 안팎에서, 여러 분야의 민초들을 대표로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공동대표는 2일 "올해 안에 500만명의 적극적 지지자를 확보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10%인 30개 의석을 얻고 국정운영의 대안세력으로서 확고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우물안 경제가 아닌, 지식경제, 투명경제, 녹색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이끌려면 국회에서 10% 정도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석 목표는 구체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아직 '희망'에 가깝다면서 "유능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기존 정치인과 다른 분들이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합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해 당의 모든 기록권을 포기하겠다고 "저를 포함한 당 대표와 집행위원들, 주요 당직자나 시도당위원장도 자리를 내드릴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민주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따르고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무시한 정당과 얘기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美대선 '아이오와 결전' 카운트 다운

민주 3파전 접전, 공화 허커비·롬니 선두 다툼

미국 정치의 1번지는 워싱턴이 다. '정치 1번지' 워싱턴에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백악관과 미 의회를 비롯한 워싱턴 조야는 새해 첫날 쾌청한 날씨 속에 적막감만 감돌았다. 새해 정치 1번지가 워싱턴에서 아이오와 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의 첫 관문이자 본선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가 이제 48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 벽두 미국 정치의 관심은 온통 아이오와 첫 경선에 쏠려 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포क्स뉴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새해 첫 날 일제히 아이오와 특집 기사를 보도하면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별 선거자금, 유세 활동과 동정, 현지 표정, 여론조사, 전망 등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등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진영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및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진영의 선거전 양상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현재 판세는 그야말로 '시계(視界) 제로'다. 조그비와 라스무센 등 미 여론조사기관들과 CNN, A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아이오와 코커스가 막판까지 대혼전 구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상원의원,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이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최종 승자는 막판까지 예측불허다. 조그비와 C-스캔, 로이터의 1일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30%), 오바마(26%), 에드워즈(25%) 등의 순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의 장점

- 1. 베트남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2. 베트남의 저렴한 생활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3.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4.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5.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00만 원대로

바람을

맞아주세요

아오자이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

062)232-1760

062)570-7851

062)959-5800

062)527-1570

당신의 'S'라인은 관망하십니까?

당신의 'S'라인은 관망하십니까?

신체비례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싶으신가요?

시즈스킨대

시즈스킨대

062)232-1760

062)570-7851

062)959-5800

062)527-1570

시즈스킨대